

# 통도사 주지에 원산 스님 임명

## 자승 스님 “문중화합을 최우선 해 달라” 당부



방장 불신 입까지 이어졌던 영축총림 통도사의 문중간 갈등이 새 주지 원산 스님의 임명으로 일단락됐다.

고 화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 주지 원산 스님은 “통도사 문제로 종도들의 심리를 꺼져 송구하다”며 “원장 스님의 어려운 결정에 감사하다. 산중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방장스님이 추천한 원산 스님에게 결격사유가 없고, 사중의 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을 고수한 빠른 임명이 산중의 회 등으로 분열된 통도사를 화합시키는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산중회의 측은 조계종 총무원을 향의방문 하려했으나 前 주지 정우 스님의 만류로 일정을 취소했다. 원산 스님의 주지임명에 산중

회의 측은 “총무원의 원산 스님 임명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8일로 주지 임기를 마친 정우 스님도 “총무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누구가 주지가 되고 맡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의 공의를 거쳐 추천권이 행사되길 바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 스님은 1964년 통도사에서 경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수지했다. 1968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원산 스님은 칠불사 운상선원 선현, 극락암 호국선원 선현, 백련화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 “문중 화합에 최선 다할 터”

“통도사 제28대 주지 문제로 인해 중정 스님을 비롯한 중대사부대중의 심리를 꺼져 송구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제28대 주지 원명 스님은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취임소감을 밝히기에 앞서 종도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원산 스님은 “통도사는 이번 주지 선출에 따른 갈등을 계기로 반성·참회하며 불교와 중단의 발전을 위해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뿐만 아니라 모든 불사

에 힘껏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무엇보다 통도사는 화합이 중요하다. 산중의 대중이 화합과 단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임을 살겠다”고 말했다.

원산 스님은 “옛부터 ‘어른을 잘 모시고 존경해야만 복을 받아 잘 산다’고 했다”며 “상경하에(上敬下愛)하는 불가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자성과 쇄신 결사 공감대 확산 조계종 6월 중 결사 운동본부 발족

조계종이 자성과 쇄신 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성과 쇄신 결사 운동본부’를 6월 내에 발족하며 대정부입장 변화 등 집행부 추진사항에 대해 중정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5월 23일 중앙종무기관 및 유관기관 총무원을 대상으로 대중공사를 연 조계종은 6월 1일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대정부 긴장관계 해소 및 전환의 필요성 △대정부 긴장관계 국면전환과 이에 따른 자성과 쇄신 결사 집중 등 중대 집행부 임장이 발표됐다.

특히 6월 중으로 예정되었는 결

사 운동본부 발족 등 총무원 각 부서의 진행경과 보고와 함께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총무원은 민족문화수호활동의 성과로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계기로 민족문화수호에 대한 종도들의 관심이 전환된 점과 공감대 형성이 됐다

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가시적인 조치를 비롯해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취약하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총무원은 세부적인 계획 추진 방안을 담아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종도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종정 예하와 원로회의의 원 스님들에게 보고하고 6월 7일 종단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 법일 스님 승적 삭제는 부당

### 조심호계원, ‘승적 복원할 것’ 판결

조심호계원이 총무원의 법일 스님의 비구계 삭제는 직권남용이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직권을 남용한 총무원장 영담 스님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밟으라고 권고했다.

조계종 조심호계원(원장 재원)은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2차 심판부를 열고 법일 스님이 신청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판에서 조심호계원은 “종법에 승적 변경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총무원장이 임의로 승적을 변경한 것은 중법 위반으로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일 스님의 승적을 복원하고, 진행한 행정조치들도 백지화하라”고 판결했다.

조동섭 기자

## 이냐는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 불교관련 지명변경 조사해야

최근 서울 안암동 개운사 진입로인 ‘개운사길’이 친일인사의 호를 따 ‘인촌로’로 변경될 뻔했다가 불교계와 항일 단체들의 반발로 해당 구청이 사과하고 복원을 약속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전국의 불교관련 지명에 대한 명칭 개조의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페이스북 부루나에서 “개운사길에 대한 명칭이 원상복구 된다는군요. 날아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일을 겨우 막았네요. 그런데 전국의 불교관련 지명이나 산 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와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게재했다.

이에 대해 부루나 회원들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N모씨는 “개운사길 명칭이 원상복구 된다는 일만은 다행이다. 앞으로의 대처가 중요하다. 명확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며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웃종교의 활동을 견제해야 한

K모씨는 “다음 총선이나 대선 때 정말 정진차려야 한다. 교회사람들은 10만원씩 쪼개어 그 동네 정치가에게 후원하지 않았을까?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후원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며 “부처님 시대에 돈 많은 장자가 기원정사를 세워주고 왕이 부처님을 후원했다. 국가의 상류계층이 호응하지 못하는 종교는 아무래도 밀리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이어 K모씨는 “기독교의 식민지 역사 왜곡은 심했다. 남미역사는 사라지고, 유럽의 초대 역사도 모두 사라지고, 그리스 내의 모든 불교 흔적도 사라지게 만든 것이었다. 대규모였고 시간도 오래 된 왜곡이었다. 그런 맥락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일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냐는 기자



“문화재청장님 서산마애불을 지켜주세요” 조계종이 서산마애삼존불 성역화와 보원사지 복원사업을 위한 ‘민족문화수호 연서 보내기’ 캠페인을 6월 2일 실시했다. 조계종 신도들은 미리 마련된 연서에 마애삼존불 성역화와 보원사지 복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연서를 작성했다. 작성된 연서는 최광성 문화재청장, 안희정 총남도지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 10·27법난, 혜성 스님 패소

10·27 법난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국가로부터 처음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이끌어 냈던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0부는 6월 1일 혜성 스님이 10·27 법난 피

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혜성 스님의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박구원 만평



한땀한땀..

## 제4회 한암사상연구원 학술회의

# 鏡虛선사와 漢岩선사

한암사상연구원(오대산 월정사, 한암문도회)에서는 오는 6월 15일(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조계종 총무원 건물)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4차 ‘한암사상연구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본 학술회의에서는 근대 한국선의 중흥조인 경허(鏡虛)선사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한 한암(漢岩)선사의 선사상과 師資관계(스승과 제자), 그리고 한암(漢岩)선사와 만공(滿空)선사의 역할, 한암 육필본 『경허집』 간행과 그 이후의 여러 경허집에 대하여(각본의 동이점과 오역 등) 고찰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근대 한국선은 그 정점에 경허선사가 있고 그의 제자로서 해월, 만공, 한암선사 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산 월정사 회주 玄海  
오대산 월정사 주지 正念

### ● 학술회의

- 일 시 : 2011년 양력 6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6시까지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총무원 청사)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 오대산 월정사, 한암문도회
- 학술회의의 사회 :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철과 교수)

### ● 발표

- 한암의 격외관문과 간화(看話) - 경허와 한암의 조사선 傳承- 발표자 - 변희욱(서울대 철학과, 간화선 전공)
- 『경허집』 편찬, 간행의 경위와 변모 양상 발표자- 이상하(민추 교학처장)
- 한암(漢岩)과 만공(滿空) 발표자- 김광식(동국대 연구교수)
- 경허선사의 지음지(知音者) 한암 발표자- 윤창화(민족사 대표, 한암사상연구자)
- 종합토론 토론회 발표자-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 교수, 선, 화엄 전공) 전보삼 교수(신구대학 교수, 만해기념관장) 자현스님(철학박사, 월정사 교무)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전화 033-339-6800, 서울 02-732-2404(민족사)